

데스크 시카



박진현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김유정 우체국' '김유정 반점' '동춘천농협 김유정 지점'…….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실패마을에 들어서면 김유정이란 이름 석 자를 내건 각양각색의 간판들이 시선을 끈다. 그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김유정역'은 사람 이름을 딴 역으로는 국내 최초다. 원래는 신남역이었으나, 지난 2004년 이 지역 출신 소설가 김유정(1908~1947)을 기리기 위해 그렇게 이름을 바꿨다.

하지만 뭘니 뭘니 해도 실패마을의 '얼굴'은 김유정 문학촌이다. 금방산에 둘러싸인 모습이 마치 읍폭하게 들어가 있는 댁시루 같다 하여 이름 붙여진 실패(시루의 방언) 마을은 김유정의 고향이자 그의 대표작인 '봄봄'과 '동백꽃'의 무대이다. 점순이 등 그의 소설 12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김유정 생가나 기념관과 함께 엮은 실패 이야기길(5.2km) 투어는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 문학관으로는 이례적으로 한 해 수십억 만 명이 다녀간다니, 말 그대로 김유정으로 먹고사는 '김유정 마을'인 셈이다.

유명한 작가들 도시 브랜드가 되다

김유정 문학촌은 '강원의 얼 선양 사업'의 결실이기도 하다. 강원도는 지난 1997년부터 시인 박인환(인제군), 소설가 이효석(평창), 화가 박수근(양구) 등 강원도를 대표하는 총칭·문화예술인 등 18명의 발자취를 재조명하기 위해 이 사업을 진행해 왔다. 모두 421억 원(2019년 기준)의 예산으로 문학관, 미술관, 기념관을

김유정 문학촌과 셰익스피어 마을

건립해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김유정 문학촌을 둘러보니 5년 전에 가 봤던 영국의 스트랫포드 어번 에이번(Stratford-upon-Avon) 마을이 떠올랐다. '에이번 강가의 스트랫포드 에이번'이라는 낭만적인 이름의 마을인데, 세계적인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발자취가 스며 있는 곳이다. 이곳엔 셰익스피어가 태어난 생가와 학창 시절을 보냈던 그램머(grammar) 학교가 있다. 그의 무덤이 있어 셰익스피어 교회라고도 불리는 성 트리니티 교회와 아나넬 해서웨이의 집도 옛 모습 그대로 보존돼 있다. 특히 나무 골조를 띤던 튜더 양식의 셰익스피어 생가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와 관광코스 그리고 은행 건물들도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풍긴다.

무엇보다 '셰익스피어 마을'의 숨겨진 매력은 작은 가게들에 있다. 한 평도 채 안 되는 엔틱 스푼에서는 쫄대·찻잔·식기 등 옛날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고, 소박한 모습의 식당에서도 셰익스피어가 생전에 즐겼다는 차와 케이크를 맛볼 수 있다. 셰익스피어 생가 바로 옆에 자리한 아트숍에는 노트·볼펜·초콜릿·넥타이·양산 등 기념품을 구입하려는 관광객들로 늘 북적인다. 한 해 방문객이 무려 600만 명이니, 이 마을에서 벌어들이는 관광 수익은 또 얼마나 될지 가늠이 안 된다.

이처럼 사람을 내세워 관광 도시가 된 곳은 국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제주도는 비록 지역 출신은 아니지만 한때 제주와 인연을 맺은 화가 이중섭과 김창열, 사진작가 김영갑을 기념하는 미술관을 조성해 '예술의 섬'이라는 근사한 타이틀을 얻었다. 경남 통영시 역시 박경리 기념관과 유치환 문학관, 윤이상 기념공원과 전혁림 미술관 등을 통해 '예술가의 고향'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펼쳐 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수많은 예술인을 배출한 광주의 인물 브랜드화는 유독 미흡한 실정이다. 가장 한국적인 목소리로 평가받는 가수 김정호는 광주에서 태어났지만 이렇다 할 기념관 하나 갖지 못하고 있다. '고독의 시인' 김현승의 문학이 꽃을 피운 광주 양림동에도 그의

생애를 엿볼 수 있는 고택이나 문학관은 찾기 어렵다. 저명한 예술가와 연관된 공간이나 기념관이 없다면 인물을 매개로 한 문화자산이 어찌 형성될 수 있겠는가?

서양화단의 선구자 고 오지호(1905~1982) 화백과 남종화의 거목 의재 허백련(1891~1977) 화백 또한 마찬가지다. 광주에서 오 화백의 예술 세계를 접할 수 있는 곳은 번듯한 미술관이 아니라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30년간 기거했던 지산동의 초가(광주시 기념물 제6호)가 유일하다. 그나마 지산동 초가는 기념물로 지정되긴 했지만, 이로 인해 재산권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일부 주민들로부터 수십 년간 '문화재 지정 해제' 요구에 시달리기도 했다.

예향 광주의 초라한 예술인 마케팅

남종화의 대가 의재 허백련 화백의 예술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의재 미술관'도 힘겹게 운영되고 있다.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은 의재미술관은 유명 건축가 조성룡 씨가 설계해 지난 2001년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한 명품 미술관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지원 없이 후손들의 힘으로 학예사 인건비 등 제반 운영비를 부담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다.

근래 국내외 도시들은 다양한 축제와 특산품으로 도시 브랜드를 홍보하는 마케팅을 펼친다. 하지만 이름만 다를 뿐 비슷한 콘텐츠의 축제가 많아 도시의 차별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인물 특히 '예술인 마케팅'이다. 문학이나 미술 혹은 음악을 통해 대중과 공감해 온 예술인들이야말로 도시를 빛내는 최고의 브랜드이기 때문이다.

한 도시의 정체성과 미래 가치를 가능할 때 사람만큼 경쟁력 있는 것도 없다. 특히 예술인은 쇠락한 도시를 살리기도 하고 색갈 없는 도시를 문화의 허브로 바꾸기도 한다. 광주가 예술인 마케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은펜칼럼



박홍근
포유건축 대표·건축사

학문 간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통섭을 이야기하고, 다양한 융복합을 말한다. 특히 건축 분야는 다양한 연구 결과물들이 반영되어 하나의 건축물로 완성되기에 더욱더 학문 간 경계가 자유롭다. 철근이나 시멘트 같은 재료, 엘리베이터, 물 공급 장치, 하수 처리, 냉난방 등의 기술이 모이고 모여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생활하는 건축 공간이다. 거주하는 아파트나 근부 공간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토목·재료·기계·전기·전자·AI 분야 등등 각 학문 기술의 종합으로 만들어졌다.

물리적인 공간을 만드는 데 다양한 공학적 연구 결과물이 반영되어 지금까지 왔다면 최근엔 과학적, 실험적 데이터로 심리학자나 뇌과학자들이 공간 형상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있다. 뇌과학자인 정재승 교수의 글에 신경과학과 건축의 만남 부분에 관한 내용이 이렇하다. "천장이 높아져 창의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천장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실험 공간을 만들어 실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 천장 높이를 달리함에

공간의 면적보다 중요한 천장 높이

따라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놀랍게도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단순 문제를 풀 때는 천장 높이가 가장 낮은 2.4미터였을 때 성과가 가장 높았다. 반면 추상적인 두 개념을 이어야 하거나 어떤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아야 하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는 천장의 높이가 가장 높았던 3.3미터에서 가장 좋은 성과가 있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천장 높이가 대개 2.4미터이고, 보통회사의 사무공간이 높아야 2.7~3미터 사이인데, 지난 50년간 노벨상 수상자 12명이 배출된 소크연구소(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소크생물학연구소, 루이스 칸 설계)는 천장 높이가 3.3미터를 약간 넘는다 는 것이다. 천장 높이가 높을 때 정말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는 결론은 신경과학 실험으로 알 수 있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분야인 신경과학과 건축학이 만나서 이런 연구 데이터를 내놓았다.

우리에 아파트는 천장 높이는 왜 2.3~2.4미터일까? 이는 건설사와 시행사 사업성으로 결정된 높이이다. 독서실 수준의 집중도가 필요한 공간에서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이 살고 있다. 얼마나 삶이 답답하겠는가? 학교는 어떠한가? 천장 높이 2.7미터 전후가 표준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런 천장 높이 공간에서 얼마나 다양성과 창의적 교육이 이루어질까? 이 지역 연구소의 천장 높이는 얼마나 될까?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은 일반 상업용 건물에 입주해 있다. 좋은 결과물을 원하는가? 연구원들에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적정

천장 높이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지금까지 성장 위주 정책, 공간 확보만을 위한 사업, 예산에 맞춘 행정을 했다면 이런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건축 정책과 행정을 해야 한다. 아파트가 대한민국 주거의 기본적 형태가 된 지도 30년이 넘었다. 학교는 해방 후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 주변의 사무 공간이나 연구소들도 이젠 변화해야 한다. 적당한 공간 확보는 물론 쾌적하고 창의적 환경의 천장 높이를 갖추어야 한다. 면적 확보에 한정하지 말고 면적과 체적을 함께 고려하는 공간 전략으로 바뀌어야 한다.

가로·세로만 있는 2차원 공간에서 가로·세로에 높이를 고려한 3차원의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해야 할 때다. 아파트 천장 높이가 사업성에 묶여 고정불변처럼 된 것을 다양한 삶이 보장되는 높이의 공간이 되게 해보자. 나라의 미래가 달린 교육 공간인 교실의 천장을 3미터 이상으로 높여 확일성에서 벗어나게 해보자. 연구소는 3.3미터 이상으로 하여 창의적 결과물이 많이 나오게 해보자. 천장 높이만 높인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좋아질 확률이 높다면 그렇게 해보자. 선례가 없다. 예산이 많이 든다. 복잡하다 등등 안 되는 이유를 찾기 전에 이미 선진국에서 하는 것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사유와 실천이 요구되는 때다. 중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이 건축 공간의 작은 변화를 통해 다양성·창의성·독립성을 가진 선진 시민으로 변화되고, 선진국으로 가는 기초 역량을 키우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기고



김은주
전라남도 이통장연합회장

마을공동체는 90년대 지방자치의 시작으로 생겨났다. 마을이란 단어는 촌락과 같은 뜻으로 동 단위보다는 작은 규모의 공간에서 일상생활을 함께하면서 소통을 바탕으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즉 마을공동체란 주민들이 모여 자신들이 속해 있는 동네에 관한 일을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주민이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갖게 된 이때 전남도에서 '정정 전남' 옴 마을' 만들기를 통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한발 앞서 준비해 가고 있는 것 같다. 과거의 마을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사람들의 정이 가득하고 흥이 넘쳐났다. 두레와 품앗이, 울력 등과 같이 서로 돕고 감싸

더불어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꿈꾼다

주는 공동체 문화로 활기가 가득했다.

하지만 오늘날 급속한 산업화로 마을 경관은 훼손되고, 대도시로 젊은이들이 유출되면서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농어촌이 활기를 잃어 그러한 것들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다. 마을 입구에 쓰레기가 쌓이고 빈집이 많아지면서 마을 분위기도 침체되어 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사람들의 소통과 왕래가 줄어들어 관계가 끊기면서 생기는 외로움과 소외감이 더욱 깊어지는 것이 근자의 마을 모습이다.

우리가 가진 천혜의 청정자원을 마을에서부터 잘 보존하고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람에 대한 따뜻한 온정과 관심, 주민 화합과 마을공동체 회복이 시급한 때이다. 이 모든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은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는다.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천연일물적인 장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만의 멋과 개성이 담겨진 공간, 다른 곳에서는 찾기 힘든 독특한 경관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방치된 생활·영농 쓰레기를 치우고, 쓰레기가 치워

진 자리에 소규모 정원이나 꽃길 조성, 벽화 그리기 등을 통해 특색 있게 마을을 가꾸는 사업이다. 아름다운 경관 조성으로 관광객 증가와 귀농·귀어·귀촌 인구 유입도 기대하고 있다.

우리 주민들이 해야 될 역할은 마을의 특성과 여건을 살려 어떻게 하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것인지 고민하고, 가치를 높일 사업을 구상해서 마을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업 계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마을 공동의 문제를 함께 개선하니 주민이 화합하고 마을공동체 정신도 회복되어 가고 있다. "함께 그린 마을 벽화를 보면서 우울한 마음이 치유된다"는 어느 마을 어르신 말씀처럼 이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치유와 화합의 마음을 느끼는 등 사업의 만족도도 높다.

'정정 전남 옴 마을' 사업은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 시대'를 일상적인 삶의 터전인 마을에서부터 실천하여, 이웃과 교류하며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해결하는 자치공동체를 실현해 갈 것이다.

마을이 살아야 전남이 일어난다. 참여와 연대, 소통의 마을공동체 정신을 갖춘 '정정 전남 옴 마을'이 늘어나면 살기 좋은 땅, 행복한 전남을 우리 후진들에게 물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社說

광주 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 위해 총력을

광주시와 울산시가 공공의료원 설립과 관련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결정을 이끌어 내고자 손을 맞잡았다. 양 시는 최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지방의료원 설립 공동 대응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국 시도 중 지방의료원이 없는 도시인 광주와 울산은 신종 코로나19에 따른 병상 부족 사태 등을 겪으면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공공의료시설 부족이 시민 안전에 위기를 증폭시킨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지방의료원 설립 절차에서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예타 면제를 위해 두 자치단체의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정부의 예타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재난 예방을 위해 시급한 경우로 학예사 인건비 등 제반 운영비를 부담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다.

계속되는 폭염 농축수산 피해 우려된다

낮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 가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닭·오리·돼지 등 가축 폐사로 인한 축산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초 폭우로 700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했던 전남 지역 수산 분야도 또다시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해보다 한 달 앞서 고수는 주의보가 발령됐기 때문이다.

폭염 특보도 계속되고 있다. 폭염 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를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되는데, 광주와 전남에 지난 9일부터 내려진 폭염 특보는 어제까지 19일째 이어졌다. 이처럼 가마솥더위가 계속되면서 전남에서는 지난 25일까지 함평·해남·나주 지역 76개 농가에서 모두 1만 8141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닭 1만 6479마리, 돼지 632마리, 오리 630마리, 메추리 400마리 등이다.

현재 함평만 전역에는 고수온 경보가,

광주시는 의료원 설립 부지를 광산구와 서구 경계에 있는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로 결정하고, 350병상에 총사업비 1천 500억 원 규모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업비에 비해 수익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의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원은 일부 취약 계층의 의료시설을 넘어 시민 건강의 최후 보루로 중요하게 여겨진다. 치료법이 없는 감염병 환자의 치료와 격리는 민간시설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성을 이유로 발목을 잡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울러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중요한 만큼 정부가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길 바란다. 광주시 역시 울산시와 함께 공공의료원 설립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시민단체 및 정치권과 힘을 합쳐 예타 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할 것이다.

독랑만·가막만 및 진도 임회면에서 해당 땅 끝에서 이르는 남해부주 연안에는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여서 수산물 피해도 우려된다. 지난 15일 첫 발령된 고수온 주의보는 지난해(8월 14일)보다 한 달이나 앞선 것인데, 28도 이상의 수온이 지속되면 수중 산소량 부족으로 양식장 어류가 집단 폐사할 가능성이 커진다.

더욱이 기상청은 이러한 폭염이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농어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가축 및 어류 폐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정 사육 밀도 유지, 환기 및 온도 조절, 사료 공급 조절 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 수급도 불안정해질 수 있는 만큼 면밀한 점검과 철저한 대비가 이뤄져야 한다. 이미 폭염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재해보험금과 복구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조기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Advertisement for Jeollanam-do Geobul Festival (전남 갯벌) with text about UNESCO World Heritage status and festival details.

Advertisement for Kwangju Ilbo (光州日報)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